



SEA-TAC HARBOR MINISTRY

1118 Port of Tacoma Rd. Tacoma, Washington 98421 Tel. (253) 320-0205
www.seatachm.org / jinkyub@gmail.com / www.facebook.com/jinkyu.bae.5

MISSION LOG BOOK

이슬람과 힌두를 비롯하여 다양한 종교인들인 50 여개 나라의 상선선원들이 출입하고 있는 타코마항에서 선원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하여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씨텍항만선교회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며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4 월 5 월 6 월달 사역을 마치고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사역을 MISSION LOG BOOK 에 기록하고 이 소식을 동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타코마항은 1964 년부터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항구입니다.



제가 타코마항으로 선교지를 옮기고 사역을 시작한지도 벌써 1 년 7 개월이 지났는데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부둣가에서 날마다 정박중인 선박과 선원들을 찾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느라고 이 지역에 계신 분들과 교제하지도 못하고 항만선교 사역을 알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생긴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1964 년부터 상선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여 벌써 48 년동안 선원 복음화를 위해 사역하고 있는

타코마항의 항만선교에 대하여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께서 많이 계신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3 개월동안 타코마항에는 245 척의 선박에 승선한 22 개국의 다양한 종교를 가진 5,390 명의 복음이 필요한 많은 상선선원들이 다녀갔으며 저희 사역자들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밤 낮으로 선박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선원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며 T 셔츠를 비롯한 운동복 한 벌씩을 나누어 주었고 선교용 DVD 와 CD 및 각국 언어로 발행된 성경과 선교자료를 전달하며 우상을 섬기는 많은 나라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상륙하지 못하고 있던 선원들에게 외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항만목사들은 복음전파를 최 우선 목적으로 사역하면서도 때로는 선원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선원들의 입장에서 불편한 것을 해결해 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매일 되풀이 되는 일이지만 선교센터에 출근하자마자 선원들에게 나누어 줄 옷과 선교 자료를 준비하고 정박중인 선박을 찾아갔습니다.

방문한 선박은 우크레인선장과 불가리아 루마니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5개국 선원 21 명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이었으며 선원들 모두 미국 비자를 받고 상륙 허가서를 취득했지만 선장의 명령에 의하여 외출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선박 GANGWAY 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선원들에게 우리를 소개하고 불편한 것이나 도와 줄 것이 있느냐고 묻게 되었고 선원들은 출항시간이 8시간 이상 넉넉히 남았을 뿐 아니라 다음 항구에서 휴가 가는 선원들도 있기 때문에 쇼핑하기 위해 상륙해야 하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상륙이 금지된 상태라며 선교센터 목사들이 본선의 선장과 상의하여 상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원들의 외출을 돕기 위하여 선원선교센터 항만목사들이 GANGWAY 에서 선장의 상륙지시를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선장에게 전달하라고 당직 사관에게 부탁하고 선원들과 함께 선장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장과 당직 사관 사이에 여러 이야기가 있는 후 선장은 우리와 통화하기를 원했고 외출 나가는 선원들 모두를 오후 4시까지 승선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외출이 승인되었으며 우선 그들 가운데 9명의 선원들을 선교센터로 안내하여 복음을 전하고 전도책자와 DVD 등을 전달한 후 쇼핑센터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선원들이 긴 항해를 끝내고 항구에 정박했다고 할지라도 선박과 화물 상태에 따라 외출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들은 아시아에서도 외출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긴 항해를 한 선원들이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상륙하지 못하고 다시 출항한다면 무려 40 일이 넘도록 긴 시간을 좁은 배 안에 갇혀 지내는 결과며 그럴 경우 선원들의 심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선원들의 이런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고 잠시라도 좁고 답답한 선박을 벗어나서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싶었습니다.

선원들 모두를 4 시까지 귀선 시키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외출한 선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다시 찾아갔을 때는 아침에 만났을 때와 전혀 다른 밝은 표정과 웃음으로 저를 맞아 주었으며 외출할 수 있도록 도와 준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하는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 하고 전도를 받은 선원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한 후 약속시간 안에 귀선 시켰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선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타코마 사역을 시작한 이래 교제를 나누는 여러 나라 선원들 가운데에는 가정과 선내에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는 선장과 기관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멀리 일본이나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또는 대양을 향해하며 전화로 기도를 부탁할 때도 있지만 타코마항에 정박 중에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직접 선박을 방문하여

함께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이들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에는 정기선으로 벌써 4~5 번째 방문하신 선장과 기관장들도 계시며 이 분들은 2박 3일 항구에 정박하는 동안 선교센터에 오셔서 저희와 교제하며 자주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분들이며 고국에 있는 부인과 자녀들 모두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로서 저희와 믿음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분들입니다.

선상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을 만나 힘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달에는 계류를 마친 선박이 FUEL 을 DIESEL 로 바꾸는 과정에서 기계의 동작이 원활하지 못하여 검은 연기가 배출되는 사고가 있었으며 다른 선박에서는 식품을 저장하는 PROVISION 창고의 냉동기 고장으로 냉동식품과 냉장식품들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두 선박의 책임 자들은 고국의 가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으며 저는 선박을 방문하여 책임자들과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 대로 잘 고쳐지고 마무리되기를 위하여 기도했으며 그 후 두 선박은 모두 문제를 해결하고 예정된 출항시간에 차질 없이 출항할 수 있었습니다.

선내에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자들은 자기의 경험과 실력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책임자들이었으며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생활하는 귀한 분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 드린 선원들과 미얀마 무슬림 형제가 개종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4 월 3 일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NEW SHIP 을 인수하여 시애틀 향으로 향하던 선박이 항해를 시작한지 며칠 만에 기관 고장으로 미국 서해안 800 마일을 남겨놓은 태평양 가운데에서 표류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통보 받은 시애틀 항만청에서 TUG BOA 를 사고 선박에 보내어 표류하고 있던 선박을 시애틀 항구로 예인하게 되었고 고장 난 엔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고장 난 부분을 자력으로 수리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을 예상한 그 선박은 멀리 PORT ANGELES 앞 바다에 ANCHORING 하고 본사의 지시를 기다리던 중에 타코마항으로 회항하여 ENGINE 을 수리 하라는 지시에 따라 다시 타코마항에 입항한 선박이 있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SPARE PART 를 공급받고 수리를 마치기까지는 3 주이상 부두에 정박해야 하는 이 선박은 선장을 비롯하여 한국인 7 명과 15 명의 미얀마선원이 타고 있는 10 만톤급의 초 대형 곡물전용선이었습니다.

다른 부두에 정박중인 선박들을 방문하며 전도하던 중 예정에 없던 선박이 한적한 부두에 정박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저희들은 여름용 T 셔츠와 선교자료를 준비하고 그 선박에 승선하여 선장을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듣던 중에 EMGINE 수리하는 3 주 동안 선원들이 상륙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륙하지 못 하는 이유로서는 모든 선박이 미국에 처음 입항할 때 미국 비자를 취득한 선원에 한 하여 29 일동안 상륙할 수 있는 허가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 선박은 이미 처음 시애틀에 입항한 날로부터 29 일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상륙허가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본사와 AGENCY 및 선장은 선원들의 상륙허가서를 연장해 달라고 관계 당국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연장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선박 수리를 끝내고 출항하는 날까지 지루하고 힘들지만 배 안에서 지낼 수 밖에 없는 푸념과 같은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를 들려 주었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센터에 돌아온 저는 DIRECTOR 되시는 PAUL 목사님께 이 사실을 통보하게 되었고 PAUL 목사님은 선교센터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없을 찾자고 하시며 “선원들이 오랫동안 상륙하지 못하고 배 안에 갇혀 있으면 정신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관계 당국에

설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선교센터에서 선원들을 교회로 안내하여 예배드리고 돌아 올 수 있도록 선원들 상륙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하고 목사님은 담당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선원들 상륙승인 요청을 위해 담당자를 만나고 돌아온 목사님은 CBP 사무실에서 겪었던 일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선 하나님께서 도와 주셔서 상륙허가서 승인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실 것 같다며 CBP의 SUPERVISOR가 조언해 준 내용을 담아 목사님은 공문서 FORM을 급히 만드시고 저는 그 공문을 가지고 선장을 찾아가했습니다.

목사님이 만들어 준 공문서 FORM에 따라 선장의 이름으로 공문서를 다시 작성하고 서명한 후 선박회사 AGENCY를 통해 관계 당국인 CBP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그 후 이틀 후인 토요일 오후에 상륙허가서가 발급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선장으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선원들 상륙허가서 승인 조건에 선원들이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린다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선원들에게 다시 한 번 주지 시키고 부서장들이 주일예배 참석할 선원들을 책임지고 인도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다음날 주일 오전에 그 동안 선박을 출입하며 전도한 선원들 가운데 한국선원 4명을 가까운 한국인 교회로 안내하여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친교를 나눈 후 선박으로 돌아가는 길에 커피점에 들러서 차를 마시며 오늘 처음 드린 예배에 대한 각 사람의 소감을 듣게 되었고 아직 믿음에 확신이 없는 선원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한 후 예수 믿기로 결심한 선원들을 축복하고 기도한 후 선박으로 귀선시켰습니다.

주일 오후 4시에 다시 선박을 방문하여 저를 기다리고 있던 미얀마 선원 6명과 함께 멀리 켄트에 있는 미얀마 교회를 방문하여 미얀마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린 후 성도들과 친교하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슬람교를 섬겨온 무슬림으로서 오늘 처음 예배드리며 경험한 소감과 교회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들은 후 미얀마목사와 저는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 결과 미얀마 선원 6명 모두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므로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귀선 시키고 보니 밤 9시가 넘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선박을 방문하여 선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어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미얀마 선원들과 한국 선원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얀마 조리사 한 사람이 조용히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여 휴게실에서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이슬람 교도로 살아왔는데 얼마 전에 결혼한 아내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이 이곳에서 수리하는 동안 항만목사들이 자주 찾아

와서 자기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듣고 이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자 당신도 예수 믿고 함께 교회에 나가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마침 어제 교회 다녀온 친구들이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며 자기들도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이번 기회에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고 아내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인의 무슬림으로서 개종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는 저는 앞으로 그가 겪을 일을 생각하며 염려스럽기도 했지만 그 청년과 함께 기도하며 위로한 후 미얀마 목사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는 수요일 저녁 저희 선교센터의 CHAPEL 에서 그 청년과 함께 예배 드리는 중에 이 청년은 기독교로 개종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타코마항에 입항할 계획이 없던 선박이 타코마항으로 회항하여 수리하면서 그 선박에 승선한 선원들을 예수 믿게 만드시고 이슬람교도 한 사람을 개종시켜서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GO EVANGELISM MINISTRY에서 20 개국어로 번역된 전도지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찾아오는 이방 종교인들인 상선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겪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선원들 나라 언어로 발간된 선교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선교센터에는 각 선교단체와 교회에서 보내 주신 선교자료들이 많이 있지만 불과 몇 개국 언어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50 여개 나라에서 찾아오는 많은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언어로 된 선교 자료를 전해 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롱비치 선원센터에서 사역할 때부터 LA 온누리교회의 조영 장로님께서 사역하시는 Go Evangelism Ministry 에서 GO91 선교자료를 후원해 오셨는데 마침 최근 20 개국 언어로 번역을 마친 선교 자료 7,000 권을 보내 주셨습니다.



선교자료가 도착된 그날 인도네시아 선원들과 미얀마 필리핀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보내 주신 선교자료를 전달했으며 전도지를 받은 선원들은 자기들 나라 언어로 기록된 말씀을 읽으며 반가워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선원들 나라 언어로 된 전도자료가 없어서 복음을 전한 후에도 많은 아쉬움이 남았지만 이제 조영 장로님께서 보내 주신 선

교자료를 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므로 그런 어려움이 해소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만에서 세계각국에서 우상을 섬기며 찾아오는 상선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씨텍항만선교회의 사역을 돕기 위해 기도하시며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복음을 들어야 할 수 많은 선원들이 다녀가는 항만에서 복음을 들은 선원들에게 각국 언어로 된 성경과 선교자료와 동영상 설교 DVD와 AUDIO 등을 전달하기엔 경제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땅에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지 160 여년이 지나면서 지금은 세계 50 여개국에서 수 백만에 이르는 예수 믿지 않는 나라의 선원들이 오대양육대주의 모든 항구를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이 때에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항만에서 사역하고 있는 해양선교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져야 할 때이며 이제는 봉사사역을 넘어서 오직 복음 전파를 우선 순위에 두고 사역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Go Evangelism Ministry 에서 GO91 선교자료를 씨텍항만선교회에 지원해 주신 것은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과 같음이며 기쁘이고 사역의 실체가 될 것으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사역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선교자료를 지원해 주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시며 동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3개월 동안에도 동역자 되시는 모든 분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힘에 겹도록 헌금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 씨텍항만선교회에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도 여러 선박을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므로 예수 믿기로 결신한 선원들이 있었으며 다른 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개종하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아직은 저 혼자 외롭고 힘든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남겨두신 이 지역의 동역자 들을 보내 주시고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각 교회와 목사님들과 동역자 되시는 모든 분들 위에 함께 계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JULY 4, 2012

타코마 배진규 항만 선교사